

세계 인문학 · 인문서 '100년' 개괄



글_ 성일권정치학 박사

인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지난 100년은 우리 인류가 인간이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특출한 능력을 최고로 믿다가 그 한계를 깨닫고 반성에 이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성은 신의 전지전능함을 대신한 인간의 권능이었다. 20세기의 인문학 출판은 신의 죽음을 선언하고, 기존의 가치질서를 전복시키며 인간이 의지를 가진 '입법자'임을 주장했던 프리드리히 니체의 죽음(1900)과 함께, 인간의 나약한 정신세계를 탐구한 지크문트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1900) 발표와 함께 시작되었다. 프로이트에 의해 창시된 정신분석은 우리의 인간이해를 새롭게 바꾸어 놓았다. 의식되지 않은 나의 과거가 나를 지배하며, 나의 정체는 내 의식에 비친 모습과는 다를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은 이성과 합리성의 잣대로는 가늠할 수 없는 '거대담론'이었다. '꿈의 해석'의 출간은 정신분석이 독립적인 분과학문으로 자리잡게 해준 분기점이 된다.

《꿈의 해석》-프로이트

이 저술은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프로이트가 빠진 우울증과 그 기간에 이뤄진 자기분석 과정의 산물이다. 이 자기분석을 통해 그는 두살 반(?)까지 올라가는 기억을 되살리면서 자신에게도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과 어머니에 대한 욕망이 있었음을 발견한다. 즉, 그는 죽은 아버지와 관계 속에 자신을 놓음에 있어 죄의식을 가진 아들이기를, 즉 자신이 곧 이론화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소유자 이길 선택한 것이다. 그는 이 이론을 보편적인 것으로 일반화한다.

거의 이와 같은 시기에 철인들의 시선을 형이상학으로부터 현상(現象)쪽으로 돌려놓은 에드문트 후설의

'논리연구' (1900~1901)가 발표되면서 20세기 중반까지 현상학과 분석철학이 인문학적 담론을 주도하게 됐다. 후설, 하이데거, 메를로-퐁티, 레비나스 등 거장들의 저서로 표출된 현상학은 드러나는 현상을 그대로 솔직하게 받아들이지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과학이라는 학문을 무기로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1차 대전을 경험한 후설은 1936년 '유럽 여러 학문의 위기와 초월론적 현상학'이라는 저서에서 삶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는 대신 단지 수단화돼 버린 학문에서 이 비극의 원인을 찾았다.

이 같은 흐름은 실존철학에도 그대로 이어져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한 주체의 능동성을 적극 강조하게 된다. 후설에게서 현상학을 배운 하이데거는 1927년 '존재와 시간'에서 존재를 이해하는 유일한 존재자인 인간(현존재)의 존재(실존)가 현상학적 실존적 분석의 주제가 되고, 현존재의 근본적인 존재의 의미가 '시간성'으로 규명된다고 주장하였다.

20년-30년대 인류 사회의 변화는 마르크스 예측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후진국인 러시아에서 먼저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한 데 반해 선진 서유럽에서는 1차 대전 직후 좌익 노동계급운동이 실패로 끝났으며, 파시즘과 나치즘도 고통을 남긴 채 지나갔다. 에리히 프롬('자유로부터의 도피', 1941), 헤르베르트 마르크제('이성과 혁명', 1941), 테오도르 아도르노('권위주의적 인간', 1950), 위르겐 하버마스('공론장의 구조전환', 1961) 등 비판이론가들은 베버 등의 사회연설에 대한 개별과학의 연구성과를 수용함으로써 마르크스 이론을 보완하고 정정하고자 했다. 이들은 마르크스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고 옹호했다.

전후 유럽 인문학을 이끌던 현상학, 실존주의, 마르크스주의는 구조주의의 거대한 흐름에 흡수된다.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의 대표 저서인 '슬픈 열대' (1955), 자크

라캉의 '글쓰기' (1966), 루이 알튀세의 '맑스를 위하여' (1965),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감옥의 역사' (1975) 등으로 대표되는 구조주의적 저서들은 주체, 의미, 역사성 등을 내세우던 종래 프랑스 철학의 흐름을 거부한다. 종래의 이론이 인간, 사회, 문화에 대해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주체의 경험, 역사성, 의식, 자유등을 강조하는 것과는 달리, 구조주의는 주체를 구조의 산물로 파악한다. 주체라는 그로부터 독립된 구조에 의해서 고유한 자리와 의미가 부여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슬픈 열대〉-레비스트로스

인류학자인 저자는 이 책에서 탐험의 회상이라는 형식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관찰과 경험을 분석하면서 '문명'과 '미래'의 관계를 규명하고, 그로부터 고통스러운 자기성찰을 시도한다.

〈감시와 처벌〉-푸코

푸코는 이 책에서 '부르주아에 대항하는 프롤레타리아의 계급투쟁'이라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은 다르게 '근대세계와 인간칙위의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 권력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포스트 구조주의는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보편적 구조를 해체해나가는 보다 급진적인 흐름이다. 질 들뢰즈(《차이와 반복》, 1968), 자크 데리다(《그라마톨로지》, 1967), 장 보드리야르(《소비의 사회》, 1970) 등에서 보듯이 서구 역사에서 보편적 이성이 초래한 전체주의적 억압을 문제 삼으면서 보편적 이성 대신 이질성, 우연, 단절, 차이, 언어, 권력, 욕망, 기호의 자율적 운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고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또한 경제학 담론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탄생과 몰락, 제 1차(1930~41)와 제2차(1974~99)의 세계대불황을 계기로, 자유방임을 극복하려는 케인스의 유효수요이론과 이를 반대하는 프리드먼과 하이에크의 자유주의이론, 그리고 자본의 세계화를 우려하는 종속이론과 마르크스 경제이론이 주도했다. 이와 함께 이 무렵 부르주아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물신화의 위험을 경계하며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련의 사회학적 저서들이 출간되었다. 사회학은 정치학과 경제학이 근대 사회의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것과는 달리, 종교, 범죄, 빈곤, 가족, 의사소통 등의 제한된 영역에 눈길을 주었다. 사회학은 20세기 초반에는 정치경제학적인

관점의 저서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 들어선 인간성 회복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사회학 초기에는 뒤르켕의 '분업론' (1902),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정신' (1905), 짐멜의 '돈의 철학' (1907), 레닌의 '제국주의론' (1917) 등 명저가 잇따른 뒤 한동안 뜸하다가 근래 들어 맥루한의 '미디어의 이해' (1964), 부르디외의 '구별짓기' (1999), 카스텔스의 '네트워크사회의 도래' (1996), 그리고 아시아적 가치' (뚜 웨이 밍) 등의 저작들이 등장해 사회학 부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의 뚜 웨이밍교수('문명들의 대화', 2004)는 베버의 생각과는 달리, 동아시아 나라에서 유교윤리가 후발 자본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이 대표적 본보기라는 것이다. 특히 한국에 대해 그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울곡 이이와 퇴계 이황이 각각 등장하는 한국의 5000원권과 1000원짜리 지폐를 보여 주며 "유학자가 이렇게 대접받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말하고 다닐 정도로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그런 그가 21세기의 한국 땅에서 인문학의 척박한 현실을 알게 된다면, 과연 한국에서 유학자가 대우받는다는 자신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할까? 21세기의 문턱을 훌쩍 넘은 지금, 우리 인문학의 현실은 어떠한가? 독자들의 인문서적 외면으로, 글을 쓰는 인문학자도 힘들지만, 책을 출간하는 출판사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영상과 미디어가 범람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인문학이란 과연 무엇인가? 5000원권에 새겨진 울곡 이이 선생의 얼굴을 한동안 들여다보면서 나 자신에게 이 같은 부질없는 질문을 묻고 또 묻는다. **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베버

그는 이 책에서 자본주의가 종교윤리, 기업조직, 임노동, 기술, 시장, 법 등 여러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서구의 경험을 통해 밝혀주고 있다. 또한 그는 자본주의 정신의 뿌리로 16,17세기의 종교개혁과 금욕적인 프로테스탄트 윤리, 특히 칼뱅주의를 지적한다.

〈네트워크사회의 도래〉-카스텔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의 '정보시대 : 경제, 사회, 문화' 3부작 중 1부다. 후자는 2부 '밀레니엄의 종언'과 3부 '정체성의 권력'을 합쳐서 이들 3부를 마르크스 '자본론'에 비견하기도 하고, 다니엘 벨의 '후기산업사회의 도래' 이후 가장 주목할 만한 정보사회 이론서로 평가하기도 한다.